

전혜빈 “‘나라가 어 손실해서’…기분 전환 위해 쓴 글귀일뿐”
연기자 전혜빈이 ‘최순실 게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SNS 글에 대해 해명했다. 전혜빈은 최근 SNS에 “나라가 어 손실해서 모두 화가 났나요? 잠시 창을 열고 가을바람을 마셔요”라고 썼다. 이후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전혜빈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시원한 걸 생각해보자는 마음에서 쓴 글귀였다”고 말했다.



배우 강동원이 16일 개봉하는 ‘가려진 시간’으로 3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하지만 그 흥행 여부 못지않게 그의 새로운 도전도 시선을 모은다.

사진제공 | 바른손이앤에이

13세에 멈춘 ‘강동원의 판타지’ 통할까?

영화 ‘가려진 시간들’ 16일 개봉

‘검은 사제들’ ‘검사와전’ 이어 흥행 3연타 노력
판타지 장르·과감한 연기변신 등 통할지 주목

배우 강동원의 도전적인 선택, 그렇게 완성된 영화가 가진 낯선 새로움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1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강동원 주연 ‘가려진 시간’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판타지의 탄생을 알린다. 강동원이 출연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제작될 수 있었을까. 그 물음표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강동원은 스크린에서 티켓파워를 과시하는 ‘파워맨’으로 꼽힌다. 최근 1년 동안 ‘검은 사제

들’(544만)과 ‘검사와전’(970만)으로 연속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름값을 더욱 높였다. 16일 개봉하는 ‘가려진 시간’(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은 그 바통을 이을지 관심을 얻는 작품.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면 3연타 흥행 홈런은 물론 장르를 막론한 티켓파워까지 인정받게 된다.

강동원은 영화가 시작하고 50여분이 지난 뒤에 등장한다. 산 속에서 사라진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돌아온 13살 소년. 그런데 모습은 다 자란 성인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갇혀 몇 년을 보내고 돌아온 영화 속 강동원을 둘러싼 상황은 그 자체로 관객의 환상을 한껏 자극한다.

어른이 된 소년이란 설정은 강동원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와 만나 시너지를 낸다. 하지만 이미지를 넘어 배우로서 보여줄 법한 새로운 연기, 다른 개성을 기대하는 관객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다. ‘검은 사제들’과 ‘검사와전’을 통해 충성도 높은 팬을 넘어 일반 관객의 기대치까지 높인 강동원의 흥행 기록이 이번 영화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경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강동원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가려진 시간’은 상업영화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웠을 법한 영화다. 그의 선택은 실험성 짙은 장르영화를 상업영화의 울타리에 속하게 했다.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는 데 있어 배우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덕분에 상업영화 연출에 처음 도전한 엄태화 감독은 화려한 데뷔의

기회까지 얻었다.

강동원을 영화로 이끈 힘은 작품이 담은 판타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다. 이날 시사회에서 강동원은 “멈춰진 시간이라는 소재를 그리고 싶었다”며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13살에 시간이 멈춘 어른의 모습을 관객과 공감할 만한 적정선으로 그리려 했다”고 밝혔다.

‘가려진 시간’은 11월 개봉하는 한국영화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다. 강동원의 출연자이던 사실이 절대적인 이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매개로 한 이 판타지 영화가 과연 훌륭한 서사를 통해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할리우드 판타지에 눈높이를 맞춘 관객의 시선에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이해리 기자 g011024d@donga.com

아이돌 3개팀 동시 출격…‘방탄’을 뚫어라!

(방탄소년단)

빅스, 새 앨범 3부작 나뉜 팬덤 공략
B.A.P·비투비 7일 컴백 ‘남성미’ 어필

‘특명: 방탄을 뚫어라!’ 빅스, B.A.P, 비투비 등 차세대 아이돌 3개 팀이 동시에 11월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이들은 2012년 데뷔한 동기 그룹으로 그동안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포부로 출격을 앞두고 있다. 햇수로 데뷔 5년차를 맞은 이들은 이번엔 전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그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이들이 현재 국내외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그룹으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아성을 넘을지 세심한 관심이 쏠린다. 방탄소년단은 이들 3개 팀보다 1년 뒤인 2013년에 컴백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스, B.A.P, 비투비 등 역시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자신들의 개성과 색다른 음악, 팬덤까지 모든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그 성과를 기대할만하다.

첫 주자는 빅스다. 빅스는 10월31일 컴백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1일부터 각종 음악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에 나선다.



빅스

B.A.P

비투비

빅스의 새 앨범은 3부작으로 선보인 ‘빅스 2016 콘셉션’의 마지막 미니앨범 ‘크라토스’. 앞서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라는 타이틀로 청춘의 아픔과 아픔다움을 3장의 앨범으로 나뉘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콘셉트 앨범이다.

여기에 멤버 전원이 제복을 입은 ‘제복 판타지’와 일렉트로닉의 세련된 멜로디, 트렌디한 안무 등을 다양하게 담아내 흥행 청신호를 켜게 됐다.

빅스의 뒤를 이어서는 B.A.P. 비투비가 동시에 나선다. 이들은 7일 나란히 새 앨범을 발표한다. 먼저 B.A.P는 두 번째 정규 ‘누아르’를 통해 남자들의 강한 모습을 드러낸다. 컴백을 앞두고 매일 한 차례씩 공개하는 티저 이미지에는 한편의 액션 영화 포스터와 같은 분위기가 녹아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멤버들 모두 그동안의 옛날 모습에서 탈피해 한층 성장한 매력을 풍긴다.

같은 날 나서는 비투비 역시 과감한 선택을 했다. 미니앨범 ‘뉴 맨’(NEW MEN)에서 엠포이듯 새로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따뜻한 감성의 발라드 곡을 주로 선보여 ‘힐링 댄스’라는 타이틀을 얻은 비투비는 이번엔 파격적인 댄스곡을 내놓는다. 타이틀곡 ‘기도’를 통해 남성미와 세시미를 동시에 드러내며 팬들에게 어필할 예정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신인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임팩트까지 줄줄이 컴백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아이돌 그룹 대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석규 ‘의학드라마·안방 흥행’ 두 토끼 사냥

SBS ‘낭만닥터 김사부’ 7일 첫 방송

한석규(사진)의 어깨가 무겁다. 안방극장에서 흥행 부진을 씻는 동시에 의학드라마의 성공까지 다시 이어가는 등 2가지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7일부터 방송하는 한석규 주연의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낭만닥터)에 방송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낭만닥터’는 한석규가 데뷔 후 처음으로 도전하는 의학드라마로 2014년 드라마 ‘비밀의 문’에 이은 2년 만의 컴백작이다. 8월 종영한 ‘닥터스



와 방송 시간차가 크게 나지 않고, 다른 의학드라마 ‘뷰티풀 마인드’가 조기종영하며 ‘의학드라마=흥행 불패’ 공식이 깨진 만큼 주인공으로서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비밀의 문’이 방송 당시 한석규의 이름값에도 불구하고 4%까지 떨어지는 등 저조한 시청률로 종영해 아쉬움을 남겼던 만큼 방송 안팎에서 부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일단 제작진은 한석규와 “가능한 기대”를 갖고 있다. 권력과 돈에 굴하지 않는 한 의사가 대형병원이 아닌 지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에서 한석규는 모든 걸 버리고 은둔하는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 역을 맡았다. 생사를 오가며 긴박하게 펼쳐지는 의학드라마가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그려겠다는 기획의도다.

이런 점에서 한석규와 잘 맞아떨어진다. 연출을 맡은 유인식 PD는 1일 “병원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대해 집중한다”며 “친숙하고 소탈한 분위기와 한석규의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가장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정윤정 작가의 ‘느림의 미학’

차기작 ‘하백의 신부’ 위해 3년의 시간 투자

드라마 ‘미생’의 정윤정 작가가(사진) ‘느림의 미학’을 선택했다.

정윤정 작가가 2014년 동명의 웹툰 ‘미생’을 드라마로 선보인 뒤 내년 케이블채널 tvN 방송을 목표로 ‘하백의 신부 2017’을 한창 집필 중이다. 차기작을 선보이기까지 3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을 투자하며 거듭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백의 신부 2017’ 제작진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윤정 작가는 지난해 3월부터 동명 만화의 드라마화에 대한 구상을 해왔다. 제작진은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촬영을 시작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해를 넘기게 됐다.

연출자 김병수 PD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2013년 ‘나인:아홉분의 시간여행’을 연출해 화제를 모은 김 PD는 현재 중국드라마 ‘상애천사 천년’ 촬영 마무리 단계로 일정상 즉시 합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계획이 틀어졌다는 아쉬움보다 정 작가와 김 PD의 호흡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정 작가와 김 PD는 2007년과 2008년 드라마 ‘별순검’ 시즌1과 2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이 ‘하백의 신부 2017’을 통해 10년 만에 재회하는 만큼 길어진 준비과정에 비례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정윤정 작가와 김병수 PD는 ‘별순검’으로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해 익숙하다”며 “‘별순검’은 두 사람이 현재의 유명세를 얻기 전 마니아 팬들에게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하백의 신부 2017’은 만화 속 ‘물의 신(神)’ 하백과 인간 여자의 사랑이라는 판타지 로맨스 이야기를 현대의 서울로 옮겨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봉준호 감독 ‘프랑스 오피시에 훈장’ 받는다



봉준호 감독(사진)이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 훈장 오피시에’를 받는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0일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영화제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Dupont 2016’ 개막식에서 오피시에를 수여한다”고 1일 밝혔다. 개막식은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다. 오피시에에는 프랑스 정부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작성을 발휘하거나 전세계 문화에 공헌이 큰 이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할리우드 영화감독 팀 버튼, 배우 샤론 스톤, 가수 엘튼 존이 받았고, 한국에서는 2011년 윤정희가 영화 ‘시’를 통해 상을 받았다.

정용화, 주시 관련 악성루머 누리꾼 고소키로

그림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가 악성 누리꾼을 고소하기로 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생산 등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용화는 6월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최종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향후 추가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영화상영·배급업 겸업 규제 법안 발의

대기업의 영화 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두 건이 동시에 발의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참여연대와 뜻을 모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업과 배급업의 겸업 규제’를 비롯해 ‘특정 영화의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예술·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김태우·김태훈,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회

현재 배우 김태우와 김태훈이 제1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집행위원장 안성기) 개막식과 폐막식 사회자로 각각 선정됐다. 행제가 나란히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김태훈은 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2011년부터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의 폐막식 사회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4회를 맞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3일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개막한다. 영화제는 6일간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된다.

■ 빅마우스

●“이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힘내요!”(가수 윤종신)

1일 SNS를 통해 전달 방송 뉴스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할 때 클로징 멘트의 배경음악으로 자신의 노래 ‘오르막길’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겨울 내내 씻지 않은 적 있다.”(방송인 배철수)

1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 대 100’에 출연해, “과거 히피 문화를 동경해 장발에 목욕도 안 하고 맨발로 다녔다”고 너스레를 떨며,

●“말 좀 타셨나봐요~ 아웃프드.(누리꾼 mjhp****) 10월31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막돼먹은 영애씨 15’에서 제작진이 김현숙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 아래로 “영애씨 말 타고 ‘이대’로 가면 안돼요”라는 자막을 사용, 최순실 씨의 말 정유라 씨가 승마 특기로 이대에 입학한 것을 풍자했다는 기사의 댓글에서,

음악 랭킹

10월 24일~10월 30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TT	TWICE
2	너무너무너무	아이오아이
3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4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5	어떻게 지내	Crush
6	내 옆에 그대인 걸	다비치
7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8	숨	박효신
9	돌아오지마 (Feat. 윤종현)	헤이즈
10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